

세계기도정보

[사우디아라비아] 대낮 52도...사우디 메카 성지순례서 최소 550명 사망
 [중국] 중국교회 새 찬송가, 국가와 공산당 찬양 내용 담겨
 [파키스탄] 법원, 여자 결혼 연령 16세→18세로...실효 위해 의식개혁 뒤따라야
 [엘살바도르] 강단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기도' 때문
 [말레이시아] 무국적 '바다 유랑민' 거쳐 무더기 철거 논란
 [유럽] 유럽 부흥의 열기...수만 수천 명 예수께 나아와
 [우간다] 사이비 종교 탈출해 예수 믿은 3남매...구타 당하고 마을서 쫓겨나
 [폴란드] 폴란드 바르샤바, 관공서 내 십자가 전시 금지
 [몰디브] 이스라엘 사람은 오지 마...휴양지 '몰디브', 입국 금지 조치
 [파나마] 해수면 상승에 섬 주민 본토 이주 '시동'
 [네팔] 대마초 재배·의료용 소비 51년 만에 허용키로
 [시리아]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임재 경험하는 시리아 그리스도인



2024. 6
 멕시코에서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경연우목사), 경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어린이전도협회(서
 부산), 셀네트워크



담임목사 김성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하나님 나라!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대학생 양헬 (과달라하라, 갱신소)

6월 14일 금요일, 양헬의 어머니인 '차지또'로부터 감사의 문자와 함께 수업 듣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보내왔다. 온몸에 문신한 양헬을 보며 동료 학생들도 신기하게 그를 바라보지만, 이제 그는 어드워드 대학생이 되었다. 밥퍼사역을 하며 가까이 알게 된 '차지또'자매는 양헬라 여목사의 제자다. 언제나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 주었다. 쉽지 않은 팬데믹 기간의 사역들,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주중 보육시설 사역까지 나는 한 번도 그녀를 경제적으로 돕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이 마약 갱신소에 들어갔다가 기도를 요청할 때 나는 그녀의 아들이 보고 싶었다. 그렇게 나와 만나게 된 양헬, 이제 보육 시설 아이들의 선생이 된 양헬을 보며 나는 '차지또'자매를 위해 그를 공부시키기로 결심했다. 감사하게 20대 중반이 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멋진 대학생이 된 그를 보며, 너무 감사하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준 차지또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분명하다. 이제 그는 대학교 학비와 그를 위한 중보기도를 책임지고 해 주실 분들이 생겼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한계를 정하지 말고..

40도가 넘는 폭염 속 매일 이어지는 강의와 설교는 쉽지 않다. 갈수록 육체의 한계를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한계와 능력을 넘길 원하신다. 이번 한 달의 방문 기간 이민 가방 4개의 의약품용 현물 받았다. 선교사의 도움을 받던 지역교회가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 선교를 위해 이제 나를 돕는 교회로 바뀌어 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나의 울타리를 넘어 인근 선교사님들을 섬기라 말씀하신다. 8월 페루 아마존 사역을 준비하는 중, 페루 장로교 교단으로부터 또 다른 지역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섬겨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할 수 없다. 나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사람이면 충분

5월 23일 목요일, 한 달의 일정으로 메리다에 도착했다. 올해는 유난히 덥다. 멕시코에 살면서 이렇게 더운 날들은 처음이다. 42도가 매일 넘어가는 작열하는 태양 빛에 땅도 구워져 가는 것 같다. 신학교에 짐을 풀고,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며 말씀을 나누었다. 26일 주일은 호엘 목사의 교회에서 말씀을 나눈다. 메리다에서 큰 교회의 담임목사 자리를 내려두고 외진 마을의 미자립 교회로 들어간 한 목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가 주도하는 제자 양육과 큐티 사역을 통해 교회가 완전히 변해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개척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을을 변화시키기에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한 사

람이다.

6월 2일 주일, 오늘은 호르헤 목사의 교회를 방문해 주일학교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러 왔다. 오전 10시 대예배를 사회부터 기도 그리고 찬양까지 주일학교 아이들이 인도한다. 말씀 선포 시간이 되자, 그제야 예배가 분리되었다. 호르헤 목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의 인식 전환을 위해 예배 인도 및 찬양을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도록 적용하고 있었다.

6월 9일 주일, 미겔 목사는 우리가 가르쳐준 주일학교 방법을 전 교인에게 적용하고 있었다. 주일학교는 그날 주일학교에서 공과와 내용을 가지고 복습 게임을 하고, 또 어른들은 설교 내용을 가지고 복습 게임을 예배 후 모두 모여 함께 실시하고 있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주일학교는 어린이가 대상이 아닌 전 교인이었다. 이들은 나보다 지혜로웠다. 도시를 벗어날수록 어린아이와 어른의 지적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전 교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도시 교회는 도시 교회대로, 시골 교회는 시골 교회대로 모두를 향해 적용하고 있었다.

여러 교회가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배운 것을 고민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 교회는 4교회가 전부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한 교회를 통해 인근 교회들을 시키 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신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한 교회다. 친구들이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10월은 캄배체에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선교사님처럼 큰 모임은 진행할 수 없지만, 주일학교 교육을 전파하기 위해 교회들이 요청하는 곳이라면, 저희가 찾아갈 예정입니다."

6월 15일 토요일, 2차 교사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준비하는 교사 17명 그리고 참석한 교사 8명, 17명의 교사들이 팀을 이루어 매주 만나며 준비한 것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인 것 같다. 그러나 계속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 "한 사람이면 충분해." 매주 한 번씩 모여 교사세미나를 준비한 선생님들은 자신의 영역에 전문가가 되어 있다. 한 자매가 강의하면서 이야기한다: "올 2월 한국에서 온 김이라는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늦게 예수님을 만나, 왜 나는 일찍 주님을 만나 주일학교를 다닐 수 없었을까를 생각했거든요.." 한 사람의 헌신이 또 다른 자신을 만든다. 사명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10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해 찾아온 치아빠스 친구들.. 내년 1월에 자신이 사는 곳으로 우리가 간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한다.

기도제목:

1. 7월 24일부터 있을 쿠바 모임을 위해 입국하는 까를로스/ 크리스퍼 목사의 안전과 모든 모임 가운데 참여하는 목회자들의 안전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2. 과달라하라 행복한 교회의 새로운 부지 구입을 위해.
3. 저의 건강과 8월 페루 사역에 필요한 교재 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